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대조 분석*

이 중 아**
(신라대학교)

김 인 균***
(신라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특징 및 대응 현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사동사에 의한 문장 구조, 문형 및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있어 분포가 자유로운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가운데 동결식 사동 표현과 '放/加/弄' 사동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한·중 사동 표현을 대조언어학 관점에서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그 대응 양상 및 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 대조 분석을 통해 확인한바, 우선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은 사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직접 사동 및 간접 사동으로 나뉘나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은 모두 직접 사동이었다. 또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여부에 따라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의 동결식 사동 표현 및 '放/加/弄' 사동 표현의 그 대응 분포 가능 여부를 살핀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곧 두 언어의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및 직접 간접 사동 여부, 주동사의 형용사 자동

* 본고는 2022년도 여름 우리말학회 학술발표대회(8월 25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줄고의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지적하며 논지를 좀더 명확하고 세심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 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사 여부 등 매우 복잡하고도 세밀한 어휘 의미, 문법 지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형태적 사동, 무표지 사동, 사동주, 피사동주, 직접 사동, 간접 사동

1. 머리말

사동은 남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하도록 누군가가 행하는 동사의 성질로서, 두 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이 설정될 수 있다. 곧 사동 표현은 사동주, 피사동주, 사동 사건, 피사동 사건으로 구성된다.¹⁾ 이때 사동주와 피사동주는 전부 그 행위의 의지를 드러내는 ‘생명체’라는 [+유정성]의 성격을 띠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한·중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한국어 사동 표현은 중국어 유표지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도 대응되는 때가 많다.²⁾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은 명확한 문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표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가 드물다.

1) 김성주(1996:19)에 따르면 사동문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사동문은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다.

나. 사동문은 사동주와 사동사건 피사동주와 피사동사건의 설정이 가능하다.

다. 사동문은 능동적인 원동사문의 설정이 가능하다.

라. 사동문은 사동사건을 표현하는 특별한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

2)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사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접미적 사동이라고 하는 형태적 사동 표현과 ‘게 하다’ 사동이라는 통사적 사동 표현이 있다. 물론 ‘-시키다’ 사동 표현도 있다. 본고는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에 집중하는바 이후 한국어 사동 표현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모두 공히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을 이르며 한국어 사동 표현,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 이 둘을 통용하여 기술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특징 및 대응 현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사동사에 의한 문장 구조, 문형 및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있어 분포가 자유로운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가운데 동결식 사동 표현과 ‘放/加/弄’ 사동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특징과 대응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한국어 사동은 최현배(1994:410)에서 “월의 임자가 직접으로 바탕스런(實質的)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꼴스런(形式的)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를 이룸”이라고 하며 ‘-이-, -하-, -리-, -기-’ 등에 의한 사동 표현, ‘-시키-’ 사동 표현, ‘-게 하-’ 사동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허웅(1975:150~173)도 이 체계를 따라 사동 표현 유형을 3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양인석(1972)는 ‘짧은 사동’과 ‘긴 사동’의 두 유형으로 한국어 사동을 분류했으며 김성주(1996)은 ‘보내다, 제외하다’ 등처럼 어휘적 사동 의미에 의한 무표지 사동과 접미사 사동 표현, ‘-시키-’ 사동 표현, ‘-게 하다’ 사동 표현의 유표지 사동으로 사동 표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그들의 문법적 특징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중국어 사동과 관련하여 呂叔湘(1999)에서는 ‘使’자 사동, ‘兼語句’, ‘把’자 사동, ‘動結式’ 사동, ‘以…為’ 구문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미정(2001)은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구분하면서 어휘적 사동을 겸류사, ‘放/加/弄’, 동결식으로 세분하였다. 宛新旻(2004)는 ‘使’자 사동, ‘把’자 사동, ‘得’자 사동은 유표지 사동에, ‘兼語句’, ‘動結式’ 사동은 무표지 사동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 대조 분석한 연구를 보면, 김봉민(2012)는 결합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사의 결합가 유형과 의미적 결합가, 통사적 결합가, 화용적 결합가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중 사동사를 고찰하고 대조 분석을 하였다. 朴连玉(2012)에서는 중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를 연구의 대조 대상으로 삼아, 중국어 사동을 ‘使’자 사동과 어휘적 사동으로 분류하면서 어휘적 사동은 ‘气’류 사동 표현, ‘结束’류 사동 표현, ‘兼语式’류 사동 표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사동은 접미사 사동, 통사 사동과 어휘 사동으로 분류하면서 중국어 ‘使’자 사동과 한국어 통사 사동 및 접미사 사동, 중국어 어휘적 사동과 한국어 어휘 사동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문화(2016)에서는 병렬말뭉치를 바탕으로 사동문의 구조 유형과 격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을 분류하여 한·중 사동문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³⁾

한·중 사동 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에 집중하는 본고는 위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참조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두 언어 간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관련 통사 의미적 특징과, 중국어의 무표지 사동과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의 대응 양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특징

1.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

한국어에서 형태적 사동 표현은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리-’ 등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사동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이른다.⁴⁾

3) 심사 위원 한 분이 지적한바, 이 외에도 한국어 사동 연구, 중국어 사동 연구 및 한·중 사동 대조 연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면에 한계가 있어 이들의 면밀한 비판적 검토는 후고에서 자세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 (1) 가. 벽이 높다.
나. 사람들이 벽을 높인다.
- (2) 가. 아이가 잔다.
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운다.
- (3) 가.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

(1)은 형용사, (2)는 자동사, (3)은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예이다. 주동사가 형용사, 자동사의 경우에는 사동 표현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주동 표현의 주어는 사동 표현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면서 사동사에 사동 표지가 붙는다.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동 표현의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나 목적어 자리에는 주동 표현의 목적어가 그대로 있다. 주동 표현의 주어는 비어 있는 부사어 자리로 이동하며, 사동사에는 사동 표지가 사용된다. 따라서 주동사가 형용사와 자동사인 경우 사동 표현은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⁵⁾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는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에게 NP₃-을/를 VP’이다.

예문 (1), (2)에서 주동 표현(1가, 2가)의 주어 ‘벽’과 ‘아이’가 사동

4) 이후 예로 드는 한국어 사동사는 김영일(2022)에서 선정한 45개 한국어 사동사 가운데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의 대조 분석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 가. 친구가 의자에 앉는다.
나. 내가 친구를 의자에 앉힌다.
- (ii) 가. 참새가 하늘로 난다.
나. 아이가 참새를 하늘로 날린다.

예문 (i 나)와 (ii 나)의 사동 구조 유형은 ‘NP₁-이/가 NP₂-을/를 NP₃-에/(으)로 VP’인데 위치나 방향 등을 의미를 지니는 격조사 ‘에, (으)로’는 주동 표현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와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표현(1나, 2나)의 목적어로 바뀐다. 또한 사동 표현 (1나, 2나)에서 새로운 주어 ‘사람들’과 ‘어머니’가 도입된다. (3)에서는 주동 표현 (3가)의 주어 ‘아이’가 사동 표현 (3나)에서 부사어로 바뀌며, 주동 표현 (3가)의 목적어가 사동 표현에서 그대로 있고, 새로운 주어가 도입된다. 사동사에는 주동사 ‘높다, 자다, 먹다’에 각각의 사동 접미사 ‘-이-, -(이)우-, -이-’가 붙는다.

한편 (1나)에 대해 사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목적어인 ‘벽’이 스스로 동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현경 외(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나, 3나)의 서술어들에 나타나는 ‘-이-’는 동일한 형태소 즉 사동 접미사로 (3나)가 사동 표현이라면 (1나)도 사동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곧 사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2나), (3나)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포함한 특정한 대상에 일정한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모두 사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 및 상태 결과는 모두 주동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사동주는 비생명체(非生命體)인 [-유정성]의 성격을 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예를 보자. (4나)의 사동주 ‘운동’은 생명체가 아니라 비생명체 [-유정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은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정성]의 경우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4) 가. 노화가 늦다.
- 나.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

이제 다음 예를 살펴보자.

- (5) 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위 예는 동생이 스스로 밥을 먹도록(5가) 또는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5나) 어떤 간접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인지, 어머니가 직접 밥을 동생의 입에 넣어 주는 행위(5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옷을 아이의 몸에 꿰거나 두르는 행위(5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⁶⁾ 전자는 ‘간접 사동’, 후자는 ‘직접 사동’에 해당한다. 간접 사동은 사동주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만 피사동주에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음을, 곧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미쳐 사건이 일어나게 함을, 곧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일치하는 경우를 이른다. 위 (5)는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인데,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인 예문 (6)도 있다.⁷⁾ (5)와 달리 (6)은 간접 사동으로 해석 불가하다.

(6) 그가 칼에 벤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다.

한편 사동주가 [-유정성]인 경우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모두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다. 곧 [-유정성]인 사동주는 피사동주에 대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거나 사건을 초래

6) 물론 아래 (i 가)의 경우는 동생이 동화책을 읽도록 어머니가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어떤 간접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i 나, 다)는 동생이 그 상황을 알거나 시계를 맡게 되는 직접적인 행위를 어머니가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한편 사동사는 주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순히 주동에 대한 사동으로서의 의미 외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 있다. 곧 다음 (ii)와 같이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 중에는 그와 대응되는 주동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i) 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혔다.
 나. 어머니가 동생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
 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시계를 맡겼다.

(ii) 친구가 소 한 마리를 먹이고 있다.

(ii)에서 ‘먹이다’는 ‘먹다’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된 동사이지만 ‘먹다’에 대한 사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육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7) 앞서 살핀 예문 (1나)도 그러하다.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는 아래 (7가, 나)에서 확인되듯이 피사 동주가 [-유정성]이든 [+유정성]이든 마찬가지이다.

- (7) 가. 햇벌이 얼음을 녹인다.
- 나. 천둥소리가 아이를 울렸다.

(7)에서 [-유정성]인 사동주 ‘햇벌’과 ‘천둥소리’는 피사동주 ‘얼음’[-유정성]과 ‘아이’[+유정성]에 대해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여 얼음이 녹거나 아이를 울리는 사건을 초래한다. 결국 이들 예는 직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⁸⁾

2.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중국어 사동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⁹⁾ 무표지 사동 표현에는 동결식 사동, ‘放/加/弄’ 사동, 겹류사 사동, ‘把’자 사동, ‘得’자 사동이 있다.¹⁰⁾ 중국어 동결식 사동 표현과 ‘放/加/弄’

8) 앞서 살핀 예문 (4나)도 (7가)처럼 사동주와 피사동주 모두 [-유정성]인 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동주가 [-유정성]처럼 보이는 다음 예를 살필 필요가 있다. (i)의 ‘회사, 백화점, 학교’ 등은 [-유정성]이나 일명 단체/집단 명사로서 그 구성원의 행위자, 곧 [+유정성] 사동주 존재를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 (7)의 사동주와 성격을 달리한다 할 수 있다. 물론 (i) 또한 직접 사동으로 해석된다. 이는 피사 동주가 [-유정성]으로 보이는 (ii)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i) 가. 회사가 계약서에 조건을 붙인다.
- 나. 백화점은 주차장 규모를 줄였다.
- 다. 학교가 반장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 라.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문 사설을 읽힌다.
- (ii) 가. 김 부장은 본부에 그 상황을 알려 왔다.
- 나. 그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9) 何元建(2002), 牛顺心(2004), 朴连玉(2012)는 중국어 사동 표현을 형태 사동과 통사 사동 표현으로, 范晓(2000)는 显性致使文(외현적 사동)과 隐性致使文(내현적 사동)으로 나누고 있다. 최규발·김은주(2014)는 유표지 사동과 무표지 사동 표현으로 나눈다.

10) 이중미(2019)에서는 중국어 유표지 사동 표현은 ‘使’자 사동과 ‘给’자 사동이고

사동 표현의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박미정(2001) 참조)

- ① NP1+(V1+V2)+NP2 (예: 他+(打+哭)+孩子)
- ② NP1+(放/加/弄+V)+NP2 (예: 他+(放+飞)+风筝)

2-1. 동결식 사동 표현

동결식 사동 표현은 동사와 결과보어가 결합하여 실현된 경우이다. 결과보어는 어떤 동작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다른 동작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 (8) 가. 阳光晒化了冰. (햇살이 얼음을 녹인다.)
나. 晚霞染红了整个村庄.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었다.)

예문 (8가, 나)는 모두 사동 의미를 지니고 있다. (8가)는 ‘阳光晒冰’과 ‘冰化了’로, (8나)는 ‘晚霞染村庄’과 ‘村庄红了’로 의미 분석할 수 있다. 즉 (8가)의 경우 햇살이 얼음을 비추기 때문에 얼음이 ‘化’의 상태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8나)는 노을이 마을을 비추어 마을이 ‘红’의 상태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동사와 결과보어가 결합해서 무조건 사동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들은 모두 ‘대명사+동보(동사+결과보어)+완료

나머지 사동 표현은 무표지 사동 표현에 속한다고 하였다. 중국어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겸류사 사동을 인정하는바, 본고는 譚景春(1997)에 따라 겸류사 사동은 어떤 형용사나 자동사, 타동사가 사동사로도 기능하는, 단지 어휘적 사동 표현이므로 무표지 사동 표현의 범주에서 배제한다. 王力(2018)에서는 ‘把’자 구문을 ‘처치(處置)’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把’자 구문은 일반 주동문으로 간주한다. 李临定(1986)에서 ‘得’자 구문은 ‘V1+得’로 구성되어 한 단어화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得’자 사동을 어휘적 사동으로 본다. 동결식 사동과 ‘放/加/弄’ 사동은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다시 밝히는바, 심사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한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후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了)+명사’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의미를 보면 차이가 난다. (9가)에서 ‘醉’는 ‘喝’의 결과이기는 하나 ‘喝’와 ‘醉’ 모두 ‘他’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酒’와 관계가 없어 문장 전체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9나)의 ‘孩子哭了’는 전체 문장의 결과보어이면서 ‘打’라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9) 가. 他喝醉了酒. (그가 술에 취했다.)

나. 他打哭了孩子. (그가 아이를 때려 울렸다.)

(박미정 2001:78)

결국 박미정(2001:78)에서 언급한바, 사동이란 어떤 실체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태로 변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동주의 작용이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2-2. ‘放/加/弄’ 사동 표현

‘放/加/弄’ 사동 표현은 원래 사동 의미가 없는 동사나 형용사에 ‘放/加/弄’ 등이 붙여져 하나의 사동사처럼 사용된 경우를 이른다. ‘放/加/弄’은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데, 전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해 사건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¹⁾ 박미정(2001)에서는 ‘放/加/弄’ 사동 표현은 의미상 처치와 결과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사동 행위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동 표현이라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放/加/弄’ 사동 표현의 문장 구조는 ‘NP1+

11) 『現代漢語詞典』(1978)의 ‘放/加/弄’에 대한 사전적 풀이는 다음과 같다.

- 放: 扩展, 控制自己的行动, 采取某种态度.(확장하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한다.)
- 加: 使数量比原来大或程度比原来高.(수량을 원래보다 크게 하거나 정도를 높인다.)
- 弄: 做, 干, 办, 搞.(하다.)

(放/加/弄+V)+NP2’인데, (放/加/弄+V)가 처음에는 ‘동사+결과보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미 하나로 단어화되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복합 동사로 간주한다. 王力(1954:110)은 ‘弄坏’에서 ‘弄’은 원인이고 ‘坏’는 결과로서 어떠한 행위를 막론하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10) 가. 他弄脏了衣服. (그가 옷을 더럽힌다.)
 나. 他放慢了车速. (그가 차의 속력을 늦춘다.)
 다. 这事加深了他们之间的矛盾. (이 일이 그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예문 (10)에 제시된 사동 표현들은 ‘NP1+(放/加/弄+V)+NP2’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의 ‘弄脏’, ‘放慢’, ‘加深’는 각각 ‘弄, 放, 加’와 결과보어 ‘脏, 慢, 深’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동사이다. (10가)는 사동주 ‘他’가 ‘弄’이라는 행동을 함으로 ‘衣服脏了’라는 사건을 일으킨다. (10나)도 사동주 ‘他’가 어떤 행동을 해서 ‘车速慢了’를 초래한다. (10다)의 피사동주 ‘他们之间的矛盾’은 사동주 ‘这事’의 영향을 받아서 ‘深了’라는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¹²⁾ 그러나 ‘放, 加, 弄’ 자체가 구체적 행위동사가 아니라 추상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이다. 사동주의 구체적 행위나 동작이 확실하지 않거나 고유한 어휘가 없을 때는 (放/加/弄+V)의 구조가 사동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¹³⁾

12) 이러한 사동 표현들은 유표지 ‘使’자 사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즉 (13가)는 ‘他使衣服弄脏’+‘衣服脏了’, (13나)는 ‘他使车速放慢’+‘车速慢了’, (13다)는 ‘这件事使他们之间的矛盾加深’+‘他们之间的矛盾加深了’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13) 모든 동사나 형용사가 ‘放/加/弄’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現代漢語詞典』에서 수록된 ‘放, 加, 弄’과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i) 放宽, 放跑, 放飞, 放大, 放慢...

(ii) 加粗, 加大, 加宽, 加深, 加重...

(iii) 弄干, 弄哭, 弄乱, 弄死, 弄醒...

이제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동결식 사동 표현과 ‘放/加/弄’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여부에 따른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자.

- (11) 가. 温暖的阳光晒化了雪. (따뜻한 햇빛이 눈을 녹였다.)
나. 晚霞染红了整个村庄.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었다.)
다. 我打哭了孩子. (내가 아이를 때려 울렸다.)
라. 一块木板救活了落水的人. (나무판자가 익수자를 살렸다.)
- (12) 가. 他放慢了车速. (그가 차의 속력을 늦춘다.)
나. 这事加深了他们之间的矛盾. (이 일이 그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하게 한다.)
다. 他弄脏了衣服. (그가 옷을 더럽혔다.)
라. 孩子弄死了蚂蚁. (아이가 개미를 죽였다.)

위 (11)과 (12)는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동주가 [+유정성]인 경우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해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거나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유정성]인 사동주는 직접 동작을 할 수 없지만 사동주의 작용이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동작을 하게 한다. 이때 이미 언급한바, 동결식 사동 표현 (11)은 동사와 결과보어를 결합하여 사동주가 직접 동작하거나 작용함으로써 피사동 사건을 초래한다. 또한 ‘放/加/弄’ 사동 표현 (12)는 ‘放/加/弄’이 실질적인 구체적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사동주가 직접 동작을 하거나 영향을 받아 피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무표지 사동 표현들은 직접 사동에 해당한다.

IV.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대조 분석

이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따른,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사동 표현의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성]으로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가.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인다. (먹-이-다)

妈妈给孩子喂饭. (직접 사동)

妈妈让孩子吃饭. (간접 사동)

나.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먹-이-다)

妈妈给孩子喂奶. (직접 사동)

(14)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입-히-다)

妈妈给孩子穿衣服. (직접 사동)

妈妈让孩子穿衣服. (간접 사동)

(15) 가. 엄마가 아이를 씻긴다. (씻-기-다)

妈妈给孩子清洗. (직접 사동)

나. 엄마가 아이에게 얼굴을 씻긴다. (씻-기-다)

妈妈给孩子洗脸. (직접 사동)

妈妈让孩子洗脸. (간접 사동)

예문 (13가)는 사동주인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직접 입에 넣는다.’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곧 직접 사동 및 간접 사동 모두 가능하다. 이때 대응되는 중국어는 유표지 ‘使’자나 ‘給’자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让’자 사동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나)는 젖을 먹는 아이가 분명히 행동 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직접 피사동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만 의미한다. 당연히 대응되는 중국어는 유표지 ‘使’자나 ‘給’자 사

동 표현이다.

‘입히다’ 사동사인 (14)는 직접과 간접 사동 모두 가능하다. 피사동주 ‘아이’가 행동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사동의 의미인 반면, 피사동주 ‘아이’가 행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동주 ‘엄마’가 직접 행위를 해야 피사동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곧 중국어 유표지 ‘让’자 사동 표현과 ‘使’자나 ‘给’자 사동 표현이 대응된다.

예문 (15가)도 사동주 ‘엄마’가 직접 동작하여 피사동 사건을 일으키므로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하지만 (15나)는 사동주 ‘엄마’가 피사동주 ‘아이에게 얼굴을 씻게 한다.’와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얼굴을 씻는다.’라는 뜻도 내포하므로 직접과 간접 사동 모두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중국어 사동 표현도 대응됨이 확인된다.

그런데 아래 (16)과 같이 사동사 ‘읽히다’의 경우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피사동 사건에 대하여 사동주 ‘선생님’이 직접 동작이나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간접 사동 의미만 가능하다. 이는 사동사 ‘알리다’와 ‘말기다’가 모두 사동주 ‘어머니’가 직접 동작을 함으로써 피사동 사건을 발생시켜 직접 사동 의미로만 해석되는 (17)과 대비를 이룬다. 이때 중국어의 경우 전자는 ‘让’자 사동 표현에 대응되는데 후자는 유표지뿐만 아니라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되지 않는다.

(16)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힌다. (읽-히-다)

老师让孩子们读书. (간접 사동)

(17) 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 (알-리-다)

母亲把情况告诉了弟弟. (사동 아님)

나. 어머니가 동생에게 시계를 맡겼다. (맡-기-다)

母亲把表交给了弟弟. (사동 아님)

이상에서 살핀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들은 주동사가 타동사이며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

-에게 NP₃-을/를 VP'의 경우이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사동 표현은 약간의 의미 해석에 따른 차이를 보일 뿐 유표지 '使'자나 '給'자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让'자 사동 표현 또는 일반 주동 표현인 '把'자 구문과 대응되지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주동사가 자동사이고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의 경우를 살펴보자.

- (18) 여자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다. (앉-히-다)
 女人将孩子弄到膝盖上坐. (사동 아님)
 女人让孩子坐在膝盖上. (간접 사동)
- (19)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누인다. (눕-이-다)
 妈妈将孩子弄到床上躺下. (사동 아님)
 妈妈让孩子躺在床上. (간접 사동)

예문 (18, 19)에서 나타나는 '弄到膝盖上坐'와 '弄到床上躺'라는 문장에서 '放/加/弄'은 사동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동 표현이다. '放/加/弄' 사동 표현은 '放/加/弄'과 피사동주의 동작이나 상태를 지니는 동사와 직접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18, 19)는 주동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18)의 '妈妈让孩子坐在膝盖上'과 (19)의 '妈妈让孩子躺在床上'라는 문장에서는 모두가 피사동주 아이가 사동주의 지시대로 행동을 하므로 중국어 유표지 사동 표현이 사용되어 간접 사동에 해당한다.

- (20) 의사가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린다. (살-리-다)
 医生救活了要死的人. (직접 사동)
 医生使要死的人活了. (직접 사동)
- (21) 임금이 죄 없는 백성을 죽인다. (죽-이-다)
 君王杀死了无辜的百姓. (직접 사동)
 君王使无辜的百姓死了. (직접 사동)

(20)은 ‘의사가 죽어 가는 사람에게 수술하거나 구급함으로 그 사람이 산다.’와 ‘죽어 가는 사람은 의사가 준 약을 먹고 나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사동주가 직접 행위를 통해 사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접 사동을 실현하는 반면에 후자는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일으키므로 간접 사동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医生救活了要死的人’, ‘医生使要死的人活了’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이 두 문장은 모두 사동주 ‘의사’가 직접 행하여 ‘要死的人活了’라는 피사동 사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예문 (21)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문장에서 간접 사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0, 21)의 대응되는 중국어는 일상에서 ‘医生救活了要死的人’, ‘君王杀死了无辜的百姓’가 더욱 많이 쓰인다. 즉 ‘살리다’ ‘죽이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救活’ ‘杀死’라는 동결식 사동 표현에 적합하다.

(22) 아이가 아버지를 깨운다. (깨-우-다)

孩子吵醒了爸爸. (직접 사동)

孩子叫醒了爸爸. (직접 사동)

孩子弄醒了爸爸. (직접 사동)

예문 (22)는 ‘아이가 아버지를 흔들어 아버지가 깨다.’와 ‘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가 깨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전자는 직접 사동이고 후자는 간접 사동이다. 그러나 사동사 ‘깨우다’가 대응되는 중국어 ‘吵醒, 叫醒, 弄醒’은 모두 사동주 ‘아이’가 행동하므로 ‘爸爸醒了’라는 피사동 사건을 일으켜 직접 사동만 실현된다. 여기서 ‘放/加/弄’ 사동 표현의 ‘弄醒’을 사용할 수 있지만 ‘放醒, 加醒’은 쓰지 못한다. ‘放’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加’는 ‘수량을 원래보다 크게 하거나 정도를 높인다.’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醒’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사동사 ‘누이다’, ‘앉히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과 간접 사동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응되는 중국어는 간접 사동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는 대응하기 어렵다. 주동사가 자동사인 ‘살리다’, ‘죽이다’에 의한 사동 표현도 직접과 간접 사동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응되는 중국어는 직접 사동만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깨우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무표지 동결식 사동 및 ‘弄’ 사동 표현과 모두 대응한다.

둘째, 한국어 사동 표현의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으로 주동사가 형용사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3) 그가 차의 속력을 늦춘다. (늦-추-다)
 他放慢了车速. (직접 사동)
 他减慢了车速. (직접 사동)
- (24) 형이 에어컨 온도를 낮춘다. (낮-추-다)
 哥哥调低了空调温度. (직접 사동)
- (25) 아버지가 길을 넓힌다. (넓-히-다)
 父亲加宽了路. (직접 사동)
- (26) 아버지가 길을 좁힌다. (좁-히-다)
 爸爸把路变窄了. (사동 아님)

예문 (23~26)에서 나타나는 사동사 ‘늦추다’, ‘낮추다’, ‘넓히다’, ‘좁히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모두 나타나지만 대응되는 중국어 사동 표현은 전부 사동주가 직접 행하여 피사동 사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동에 속한다. 사동사 ‘늦추다’, ‘낮추다’, ‘넓히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사동사는 ‘放慢, 减慢’, ‘调低’, ‘加宽’인데, ‘좁히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이 불가능하다. 중국어에서 ‘窄(좁다)’는 다른 동사와 결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식 사동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窄’자 자체가 ‘작다’의 의미를 가지며 ‘放/加’는 ‘확대하다’의 뜻이 있으므로 ‘窄’의 뜻과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放/加’와 결합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 살핀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들은 주동사가 형용사이며,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의 경우이다. 이때는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고 동결식 사동 및 ‘放/加’ 사동 표현과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면서 ‘加’ 사동 표현만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이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를 살펴보자.

- (27) 가. 그가 끓은 물을 식힌다. (식-히-다)
 他凉(liàng)凉(liáng)了开水. (직접 사동)
 他弄凉(liáng)了开水. (직접 사동)
 나. 아이가 얼음으로 끓은 물을 식혔다. (식-히-다)
 孩子用冰弄凉了开水. (직접 사동)
- (28) 가. 아이가 눈을 녹인다. (녹-이-다)
 孩子弄化了雪. (직접 사동)
 나. 아이가 따스한 햇살에 고드름을 녹인다. (녹-이-다)
 孩子在温暖的阳光下晒化冰柱. (직접 사동)
- (29) 아이가 손에 물감을 문혔다. (문-히-다)
 孩子手上沾染了颜料. (사동 아님)
- (30) 그 학생은 원고 제출 기한을 넘겼다. (넘-기-다)
 那个学生错过了交稿日期. (사동 아님)

예문 (27~30)의 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나타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모두가 사동주가 직접 동작을 통해서 사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동에 해당한다. (27가)의 사동사 ‘식히다’에 대응된 중국어는 ‘凉(liàng)凉(liáng), 吹凉(liáng)’이며, 이들은 성조가 변함에 따라 실현된 동결식 사동 표현이다. (27가)에서 ‘凉(liàng)’은 사동주가 동작성을 지니는 동사이며, 凉(liáng)은 피사동주 ‘끓은 물’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상태성을 지닌 형용사이다. 그러나 일상어에서 ‘他凉(liàng)凉(liáng)了开水’는 ‘他弄凉(liáng)了开水’보다 자주 사용된다. 왜냐하면 ‘弄’ 자체가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지 않기 때

문에 앞선 문장을 선호한다.

(28가)도 마찬가지로 사동주 ‘아이’의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弄化’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7나, 28나)의 경우는 문장에서 수단, 방법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27나)는 아이가 얼음을 이용하여 ‘水凉(liáng)了’라는 상태 변화를 일으켰지만 구체적 동작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동사 ‘弄’와 ‘凉(liáng)’을 결합하여 상용한다. 그러나 (28나)의 경우에는 사동주가 아이이지만 실제로는 ‘고드름이 녹다’라는 상태 변화는 따스한 햇살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晒化’라는 표현을 쓰인다. ‘弄化’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만 ‘放/加/弄’ 사동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9, 30)에서 ‘묻히다’와 ‘넘기다’에 의한 사동 표현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사동 표현이 아니라 일반 주동 표현이다. (29)의 ‘染’는 ‘沾’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문장 전체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沾’와 ‘染’은 모두 ‘孩子手’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颜料’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30)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동 표현이 아니다.

결국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들은 주동사가 자동사이며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의 경우 모두 직접 사동이다. 이때 한·중사동 표현과 대응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중국어 무표지 동결식 사동 표현 및 ‘弄’ 사동 표현과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한국어 사동 표현의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31) 자연재해가 많은 백성을 죽인다. (죽-이다)

自然灾害杀死了许多百姓. (직접 사동)

自然灾害使百姓死了. (직접 사동)

(32) 나무판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린다. (살-리-다)

一块木板救活了落水者. (직접 사동)

一块木板使落水者活了. (직접 사동)

(33) 그 연극은 관객을 웃긴다. (웃-기-다)

那部话剧逗笑了观众. (직접 사동)

那部话剧使观众大笑. (직접 사동)

(31, 32, 33)은 사동주가 [-유정성]이기 때문에 피사동주에 대해 직접 동작을 할 수 없지만 직접 작용이나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직접 사동에 속한다. 사동사 ‘죽이다’, ‘살리다’, ‘웃기다’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杀死, 使…死’, ‘救活, 使…活’, ‘逗笑, 使…笑’이다. 이 때 ‘放/加/弄’ 사동 표현과 대응되지 않는다. ‘弄死, 弄活, 弄笑’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동주가 [+유정성]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弄死’라는 표현은 주로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제거하거나 끊어지게 함을 나타낸다. 사람의 경우 ‘弄死’를 하면 ‘희롱하고 죽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이미 ‘救活’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弄活’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저지현상¹⁴⁾이 일어나 부자연스럽다.

이상은 주동사가 자동사이며,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의 경우이다. 이때 한국어 사동 표현은 모두 직접 사동인데, 중국어 ‘使’자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무표지 사동 표현 중 동결식 사동 표현과도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34) 기차가 속도를 늦춘다. (늦-추-다)

火車減慢了速度. (직접 사동)

火車放慢了速度. (직접 사동)

14) 저지현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송철의(1992) 참조.

(34)에서는 사동주 기차가 스스로 속도를 늦출 수는 없어서 분명히 문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기관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 속도를 늦춘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동이다. 사동사 ‘늦추다’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減慢, 放慢’이다.

(35) 찬바람이 끓은 물을 식힌다. (식-히-다)

冷风吹凉(liáng)了开水. (직접 사동)

冷风使开水凉了. (직접 사동)

(36)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인다. (녹-이-다)

阳光晒化了冰柱. (직접 사동)

温暖的阳光使冰柱化了. (직접 사동)

예문 (35, 36)은 사동주가 [-유정성]이기 때문에 피사동주에 대해 직접 동작이 없어도 직접 작용이나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에 속한다. 이 경우 사동사 ‘식히다’, ‘녹이다’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吹凉, 使…凉’, ‘晒化, 使…化’이다.

(34)의 주동사는 형용사이고, (35, 36)의 주동사는 자동사이며,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인 문장 구조 유형 ‘NP₁-이/가 NP₂-을/를 VP’의 경우이다. 주동사가 형용사인 한국어 사동 표현은 중국어 무표지 동결식 사동 표현 및 ‘放’ 사동 표현과 대응이 가능하며, 주동사가 자동사인 한국어 사동 표현은 중국어 ‘使’자 사동 표현 및 동결식 사동 표현과 대응된다.

정리해 보자면, 주동사가 형용사인 사동사 ‘늦추다’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성]과 상관없이 모두 중국어 동결식 사동 및 ‘放’사동 표현과 대응이 가능하다. 주동사가 자동사인 사동사 ‘살리다’의 사동 표현에서도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성]과 상관없이 모두 중국어 동결식 사동 표현과 대응된다. ‘식히다’의 사동 표현 경우에는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일 때 중국어 동결식 사동 및 ‘弄’ 사동 표현과 모두 대응한다. 또한 사동주가 수단이나 방법을 이

용할 때는 ‘弄’ 사동 표현만 해당한다. 그러나 ‘녹이다’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일 때 중국어 ‘弄’ 사동 표현과 대응되고 문장에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경우에는 중국어 동결식 사동 표현만 해당한다. 사동사 ‘식히다, 녹이다’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의 경우에는 중국어 동결식 사동 표현만 대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만 ‘放/加/弄’ 사동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의 특징 및 대응 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는 그 행위의 의지를 드러내는 ‘생명체’라는 [+유정성]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정성]의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먼저 사동사에 의한 문장 구조, 문형 및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있어 분포가 자유로운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 중 전형적인 사동 표현인 동결식 사동 표현과 ‘放/加/弄’ 사동 표현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동주가 직접 사동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은 모두 직접 사동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은 사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직접 사동 및 간접 사동으로 나뉜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는 공히 사동주가 [-유정성]의 경우 직접 동작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동 사건에 직접 작용하거나 영향을 줌으로써 피사동 사건을 발생시키는 직접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은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따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어떠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의 성격을 지닐 때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과 대응이 불가능하다.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사동사 개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띤다.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의 성격을 지닐 때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모두 직접 사동이다. 그런데 ‘묻히다’, ‘넘기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에서 주동의 의미만을 지녀 중국어 사동 표현과의 대응이 불가능하며, ‘식히다’, ‘눅이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무표지 동결식 사동 표현 및 ‘弄’ 사동 표현과 모두 대응된다.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유정성]일 때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모두 직접 사동이다. ‘죽이다’, ‘살리다’, ‘웃기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使’자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동결식 사동 표현과도 대응된다.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정성]의 성격을 지닌 경우 직접 사동이다. 주동사가 형용사인 ‘눅추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무표지 동결식 사동 표현 및 ‘放’ 사동 표현과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주동사가 자동사인 ‘식히다’, ‘눅이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 동결식 사동 표현과만 대응된다.

이상에서 한국어 형태적 사동 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사동 표현을 대조한바, 두 언어의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및 직접 간접 사동 여부, 주동사의 형용사 자동사 여부 등 매우 복잡하고도 세밀한 어휘 의미, 문법 지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곧 늘 인지하고 있는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지식 이상으로 제1언어인 중국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면밀한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두 언어 간 일단의 사동 표현 대조 분석을 해 본 본고는 다시 한번 확인 및 확신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봉민(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사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주(1996), 「국어 사동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일(202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동사 목록 선정과 제시: 초·중급 수준의 사동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2, 우리말글학회, 101-136.
- 김윤신(2001), 「파생동사의 어휘 의미구조: 사동화와 피사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貞玉(2016), 「현대 중국어 ‘통사적 사동문’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3), 「현대 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老舍 『四世同堂』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 외(2019),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노금송(2014), 「한중 사동문 구조 유형과 의미 대조 분석」, 『우리말연구』 39, 우리말학회, 117-139.
- 류성기(1992), 「國語 使動詞에 關한 通時的 研究」,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정(2001), 「現代 中國語의 使動表現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朴連玉(2012), 「중·한 사동문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연옥·박동호(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사동문 대조 연구」, 『언어와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7-149.
- 손민호(1978), 「긴 形과 짧은 形」, 『어학연구』 1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41-151.
- 송석중(1978), 「사동문의 두 형식」,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1-13.
- 송철의(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國語學會.
- 안소정(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동표현 지도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백함출판사.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
- 왕녕박(2017), 「한·중 사동과 피동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례량(2009),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中國學研究』 50, 중국학연구회, 131-154.
- 우동동·김인균(2017), 「한·중 피동 표현에 나타난 서술 구성 대조 분석: 한국어 교육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203-226.
-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문화(2016), 「병렬말뭉치 기반 한-중 사동표현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문화(2019), 「한국어 사동표현과 중국어 무표지 어휘 사동의 대응 현상 연구: 한-중 병렬말뭉치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회, 417-440.
- 이봉금(2015), 「현대 중국어 사동 구문의 의미연구: 통사적 사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修珍(2012), 「중국어 사동 표현과 거리 도상성」, 『中國語文學』 60, 영남중국어문화회, 559-580.
- 이중아(2019),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 표현 대조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2008), 「타동성과 국어 사동표현의 의미」, 『語文研究』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5-170.
- 최길림(2007),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발·김은주(2014), 「한·중 사동법의 대조」,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499-548.
- 최현배(1994), 『우리말본』, 정음 문화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하은진(2000),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yons, J.(1977), *Semantics 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范晓(2000), 「論致使結構」, 『語法研究與探索(10)』, 商務印書館.
- 何建元·王玲玲(2002), 「論漢語使役句」, 『中國語言文字』, 香港中文大學新雅語文研習所, 2002年第四期, 1-9.
- 李临定(1986), 『現代漢語句型』, 商務印書館.
- 呂叔湘(1999),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呂叔湘(2018),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聂剑(2014), 「把字句語篇功能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 牛順心(2004), 「漢語中致使範疇的結構類型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論文.
- 譚景春(1997), 「致使動詞及其相關句型」, 『語法研究和探索(八)』, 北京商務印書館.
- 王力(1954), 『中國語法理論』, 山東教育出版社.
- 王力(2018), 『中國現代語法』, 北京聯合出版公司.
- 項開喜(2002), 「漢語的雙施力結構式」, 『中國語言文學』,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2年第二期, 70-77.
- 宛新政(2004), 「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 博士論文.
- 周紅(2004), 「現代漢語致使範疇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1978), 『現代漢語詞典』, 北京商務印書館.

❖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 Expressions and Chinese Unmarked
Causative Expressions

Li, Zhong-Ya
Silla University

Kim, In-Kyun
Silla University

The paper presents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rrespondence between the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 expressions and the Chinese unmarked causative expressions. The [animateness] of the causers and causes of Korean causative expressions are the main topics of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 sentences. However, in Chinese unmarked causative sentences, there is a lot of freedom in how the maker and made subject are distributed. Based on this, a controlled linguistic view is used to compare and elaborate the correspond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ausative sentenc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 sentences can be divided into direct causatives and indirect causatives according to the lexical meaning of causative verbs. But the Chinese unmarked causative sentences are all direct actuation. To investigate the two languages of the causers and causes of the [animateness] and direct and indirect causative or not, the active word was an

202 비교문화연구 제67집(2022.10)

adjective or intransitive verb or not, require to be familiar with its lexical meaning and grammar knowledge.

Key Words : Morphological Causative, Unmarked Causative, Causers, Causes, Direct Causative, Indirect Causative

■ 논문투고일 : 2022. 09. 08

■ 심사완료일 : 2022. 09. 28

■ 게재확정일 : 2022. 10. 04